

제 5 교시

제2외국어/한문 영역(한문I)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|--|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성명 | | 수험 번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|--|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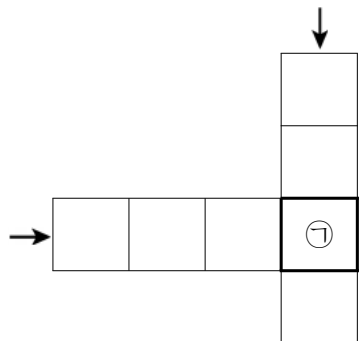
1. 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[1점]



교사: 이 그림은 조선의 인종이 세자 시절 자신의 스승인 김인후에게 그려서 하사한 것입니다.
학생: 그림에 얹힌 얘기가 있나요?
교사: 절의의 상징인 대나무와 변치 않는 성질의 바위를 그린 인종의 뜻을 받들어 김인후도 그림에 자신의 생각을 써 넣었습니다. 그 첫 구에서 “㉠뿌리, 가지, 마디, 잎이 모두 정교하다.”라고 하여 이 그림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.

- ① 根 ② 枝 ③ 葉 ④ 節 ⑤ 果

2.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, ㉠에 들어가는 한자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것은? [1점]



【가로 열쇠】
맑은 바람과 맑은 달.
【세로 열쇠】
나날이 다달이 진보함.

- ① 下 ② 山 ③ 江 ④ 村 ⑤ 鳴

3. 두 자를 <보기>와 같이 합하여 하나의 한자로 만들 때, ㉠과 ㉡의 음이 모두 옳은 것은? [1점]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—<보 기>— | |
| 相 + 心 = (想) | |
| — | |
| ○ 加 + 貝 = (㉠) | ○ 莫 + 日 = (㉡) |

- | | | | |
|-----|---|-----|---|
| ㉠ | ㉡ | ㉠ | ㉡ |
| ① 하 | 막 | ② 가 | 막 |
| ③ 하 | 모 | ④ 가 | 모 |
| ⑤ 하 | 묘 | | |

4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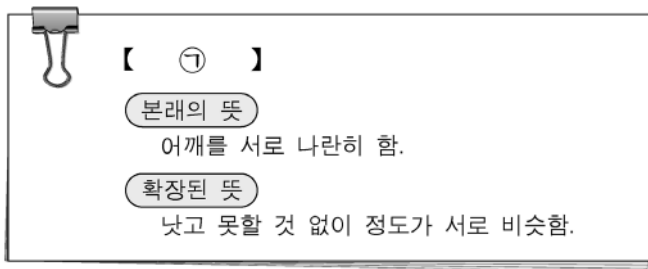
- ① 吏 ② 身 ③ 辛 ④ 長 ⑤ 臣

5.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1점]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—<보 기>— | |
| ㄱ. 存 - 在 | ㄴ. 休 - 息 |
| ㄷ. 進 - 退 | ㄹ. 往 - 來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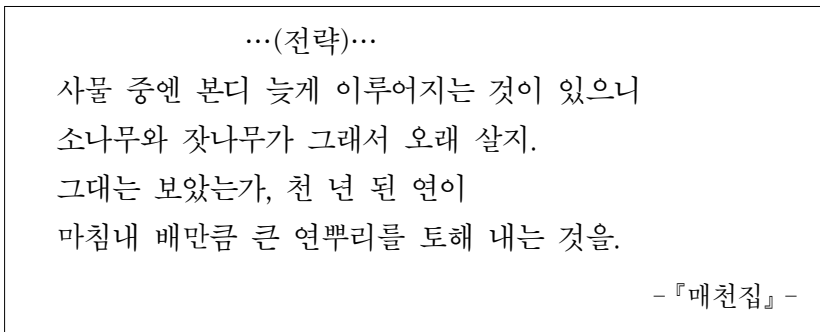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④ ㄴ, ㄹ ⑤ ㄷ, ㄹ

6.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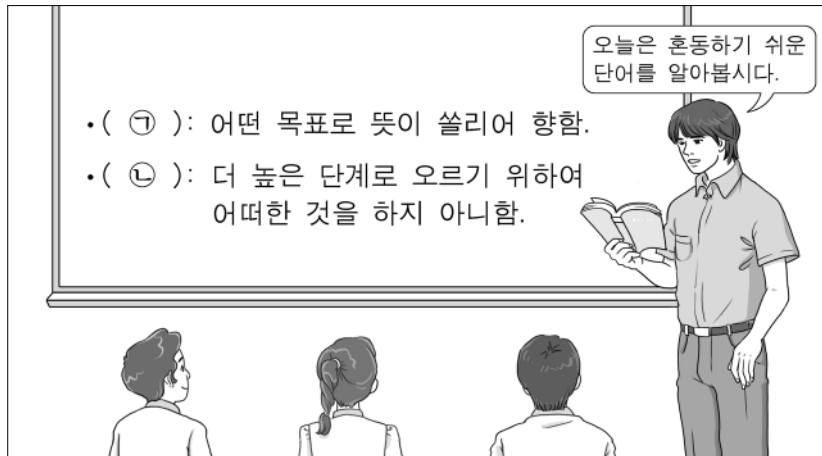
- ① 竝行 ② 對立 ③ 類似 ④ 比肩 ⑤ 同伴

7. 시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? [1점]



- ① 大同小異 ② 千載一遇 ③ 樂山樂水
④ 大器晚成 ⑤ 孤立無援

8. 그림의 내용으로 보아 ㉠과 ㉡의 한자 표기로 모두 옳은 것은?



- | | | | |
|------|----|------|----|
| ㉠ | ㉡ | ㉠ | ㉡ |
| ① 志向 | 止揚 | ② 傾向 | 止揚 |
| ③ 志向 | 高揚 | ④ 傾向 | 高揚 |
| ⑤ 意向 | 高揚 | | |

9.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? [1점]

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낡고 썩기 마련이지만, 발효된 것은 썩는 법이 없다. 고전은 정신의 발효 음식이다. 옛 터전에서 새로운 썩이 돌아난다. 옛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부패하기 쉽다. 썩은 데서 새로운 것이 싹틀 수 없다. 썩지 않으려면 삭혀야 한다. 고전은 옛 시대의 빛나는 정신을 오랜 세월이 걸쳐 삭히고 발효시킨 '오래된 새로움'이다.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다. 창조는 곧 '오래된 새로움의 발견'이다.

-『고전사계』-

-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① 燈下不明 | ② 桑田碧海 | ③ 溫故知新 |
| ④ 苦盡甘來 | ⑤ 切齒腐心 | |

10. 시나리오의 ㉠에 들어갈 시구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

S#49. 처마 밑

동하가 메이와 처마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

메이 : (아쉬운 표정으로) 오늘 귀국 하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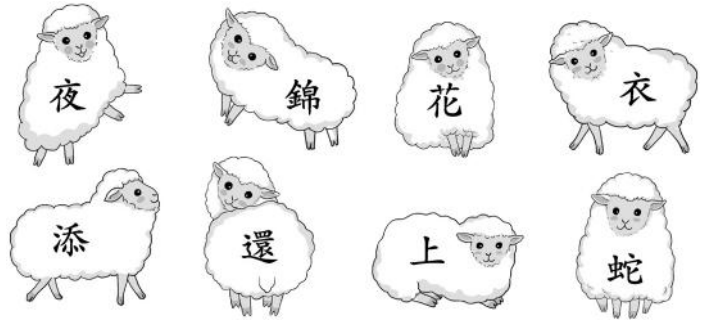
동하 : (그윽한 시선으로) 내일로 연기 했어. 함께 있고 싶어서…….

때맞추어 단비가 내린다.

메이 : (손을 내밀어 비를 맞으며 마음속으로) ㉠ (이)라더니, 이 사람은 때를 알고 온 것일까?

- | | |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① 好雨知時節 | ② 春雨細不滴 | ③ 錯認爲疏雨 |
| ④ 往來風雨中 | ⑤ 昨夜松堂雨 | |

11. 그림의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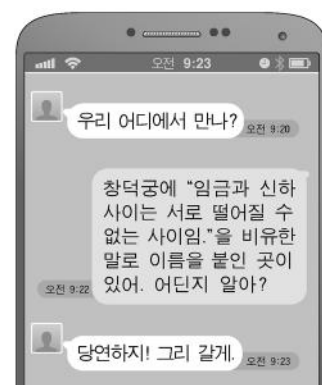
- ① 애를 많이 썼지만 티도 안 나네.
- ② 마지막 그 말만 안 했어도 좋았을걸.
- ③ 게다가 그렇게까지 해 주니 좋고말고.
- ④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공부도 하는구나.
- ⑤ 성공하기 전까지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야.

12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| | | | |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① 離 | ② 連 | ③ 空 | ④ 領 | ⑤ 着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
13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만나기로 한 장소는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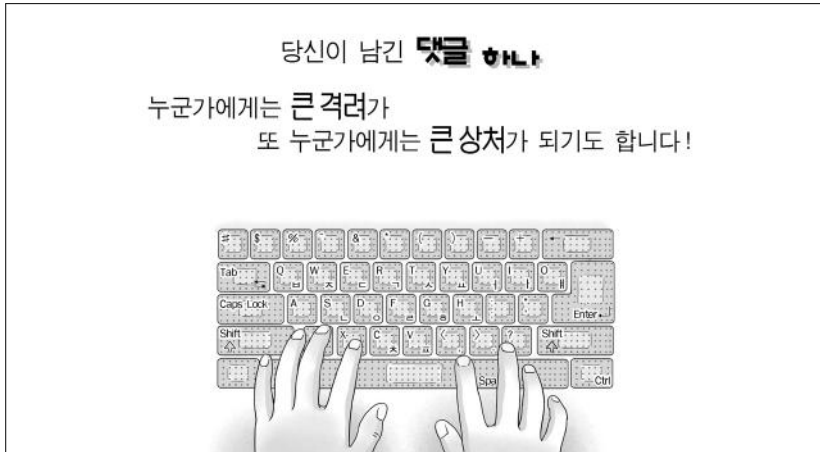
14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?

不知其人，視其友。

-『이담속관』-

-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① 不恥下問 | ② 始終如一 | ③ 類類相從 |
| ④ 莫上莫下 | ⑤ 異口同聲 | |

15. 광고의 내용과 의미가 통하는 것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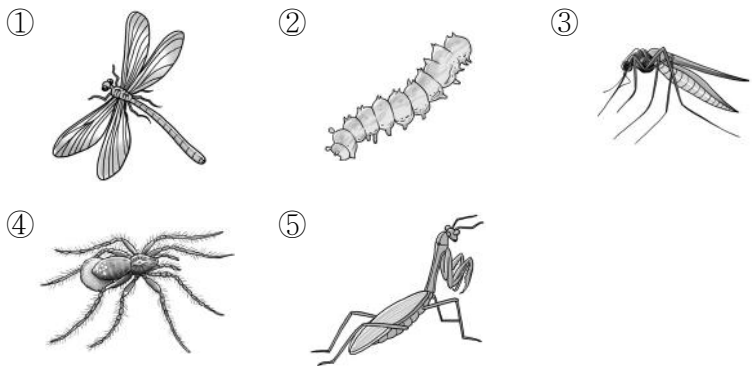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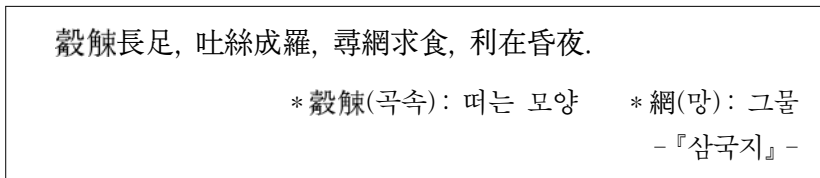
- ① 先即制人, 後則爲人所制.
- ② 愛而知其惡, 憎而知其善.
- ③ 居安思危, 思則有備, 有備無患.
- ④ 智者, 成之於順時, 愚者, 敗之於逆理.
- ⑤ 良言一句, 三冬暖, 惡語傷人, 六月寒.

16. 가상 인터뷰의 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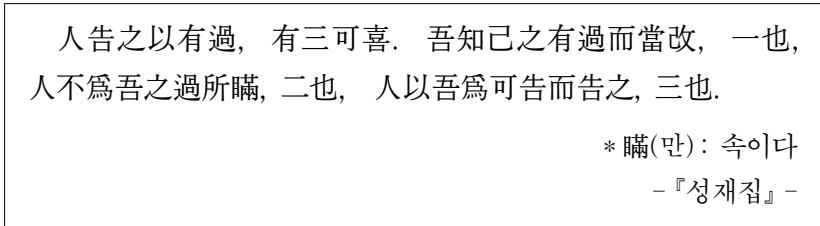


- ① 欲勝人者, 必先自勝.
- ② 恭者不侮人, 儉者不奪人.
- ③ 自重其身者, 人不敢輕之.
- ④ 惟其人是視, 用賢而捨不肖.
- ⑤ 人之過誤宜恕, 而在己則不可恕.

17.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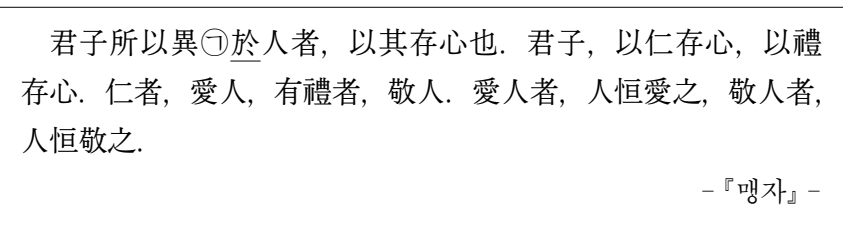


18.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자세와 가장 가까운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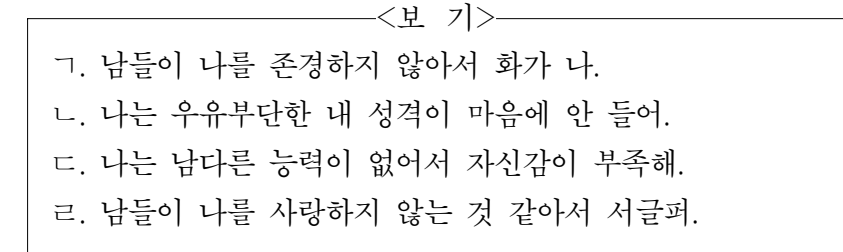


- ① 吉人喜聞人長.
- ② 道吾過者, 是吾師.
- ③ 今日所爲, 明日難改.
- ④ 己所不欲, 勿施於人.
- ⑤ 好憎人者, 亦爲人所憎.

[19~2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

19.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필요한 경우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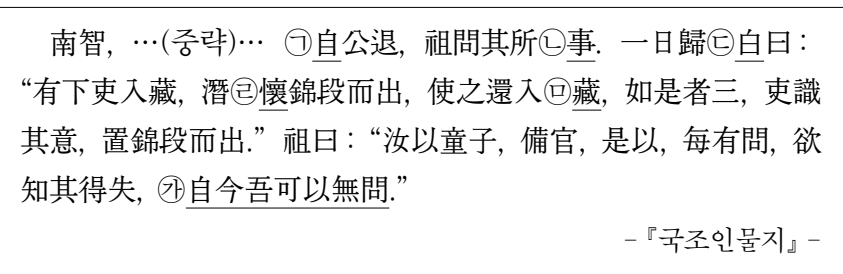
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ㄷ
- ⑤ ㄴ, ㄷ, ㄹ

20. 의미상 ㉠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?

- ① 又
- ② 乃
- ③ 已
- ④ 于
- ⑤ 而

[21~22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

21. ㉠~㉦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스스로
- ② ㉡: 일삼다
- ③ ㉢: 아뢰다
- ④ ㉣: 품다
- ⑤ ㉤: 창고

22. ㉦에 드러난 마음은?

- ① 戀慕
- ② 憎惡
- ③ 疑心
- ④ 失望
- ⑤ 信賴

[23~2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人君之位, 尊則尊矣, 貴則貴矣. 然, 天下至廣也, 萬民至衆也. 一有不得其心, 則蓋有大可慮者存焉. 下民至弱也, 不可以力刼之也, 至愚也, 不可以智欺之也. 得其心則服之, 不得其心則去之. 去就之間, 不㉠容毫髮焉. 然, 所謂得其心者, 非以私意苟且而爲之也, 非以違道干譽而致之也, 亦曰(㉡)而已矣.

* 刼(겁): 위협하다 - 『삼봉집』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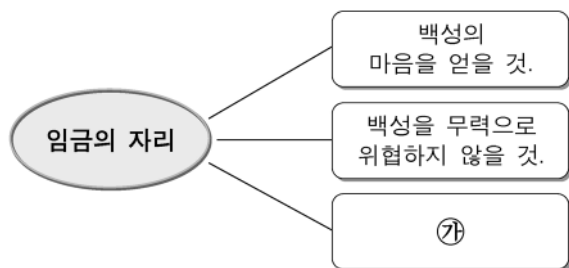
23. ㉠과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은?

- ① 包容 ② 許容 ③ 美容 ④ 受容 ⑤ 寬容

24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㉡에 알맞은 것은?

- ① 力 ② 利 ③ 仁 ④ 貴 ⑤ 譽

25. 위 글의 내용을 정리할 때 ㉢에 알맞은 것은?



- ① 백성에게 예를 가르칠 것.
 ② 백성을 피로 속이지 말 것.
 ③ 백성에게 생업을 마련해 줄 것.
 ④ 백성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것.
 ⑤ 백성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지 말 것.

[26~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趙高欲爲亂, 恐群臣不㉠聽.
 ㉡ 二世笑曰: “丞相誤邪? 謂鹿爲馬.”
 ㉢ 乃先設驗, 持鹿獻於二世曰: “馬也.”
 ㉣ 高因陰中諸言鹿者以法, 後群臣皆畏高.
 ㉤ 問左右, 左右或默, 或言馬以阿順趙高, 或言鹿者.

* 趙高(조고): 사람 이름 * 丞相(승상): 벼슬 이름
 * 阿(아): 아첨하다
 - 『사기』 -

26. ㉢의 의미로 옳은 것은?

- ① 問 ② 從 ③ 定 ④ 斷 ⑤ 待

27. 글의 전개에 따라 ㉠~㉤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- ① ㉠ → ㉡ → ㉢ → ㉤
 ② ㉠ → ㉡ → ㉣ → ㉤
 ③ ㉠ → ㉣ → ㉤ → ㉡
 ④ ㉡ → ㉠ → ㉣ → ㉤
 ⑤ ㉡ → ㉠ → ㉤ → ㉣

[28~30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採藥忽㉠迷路, ㉡千峯秋葉裏.
 山僧汲水歸, 林末㉢茶煙起.

* 汲(급): 물을 길다
 - 이이, 『山中』 -

(나) 洛陽城裏見秋風, 欲作家書意㉣萬重.
 復恐忽忽說㉤不盡, ㉥行人臨發又開封.

* 洛陽(낙양): 지명 * 忽忽(충충): 바쁜 모양
 - 장적, 『秋思』 -

28. ㉠~㉤의 풀이로 옳은 것은?

- ① ㉠: 오솔길 ② ㉡: 높은 봉우리
 ③ ㉢: 차 달이는 연기 ④ ㉣: 매우 무겁다
 ⑤ ㉤: 진솔하지 않다

29.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—<보 기>—

- ㄱ. (가)에서 운자(韻字)는 ‘裏’, ‘起’이다.
 ㄴ. (가)에서 셋째 구와 넷째 구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.
 ㄷ. (나)의 형식은 칠언절구이다.
 ㄹ. (나)에서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루고 있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ㄹ
 ④ ㄱ, ㄴ, ㄷ ⑤ ㄴ, ㄷ, ㄹ

30. 시적 화자가 ㉥와 같이 행동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전달할 편지를 잃어버릴까 봐.
 ② 편지를 받을 사람이 떠날까 봐.
 ③ 다른 사람이 편지를 읽어 볼까 봐.
 ④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떠났을까 봐.
 ⑤ 편지에 쓰지 못한 말이 더 있을까 봐.

* 확인 사항
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